

# “콘텐츠 현실성 없고 전당 기능·역할도 모호”

쉐러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총감독

## “문화전당서 생산한 콘텐츠 세계인과 나누는 방안 찾자”

### 전문가들이 본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지건길 위원장 허달재 위원 변길현 학예사 홍성흠 교수

오는 2015년 개관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콘텐츠 계획안이 2일 '2013 아시아 문화전당 국제 컨퍼런스'에서 공개됐다.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장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식의 야생정원, 아시아 문화전당'을 주제로 콘텐츠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시아문화개발은 문화전당의 전시·공연, 기능 등 콘텐츠 개발을 맡은 법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콘텐츠 내용이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데다 문화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아시아문화개발 담당자들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 조언할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미흡한 부분 있으면 수정·보완도 조언할 생각이다.

◇허달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콘텐츠 계획안에 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문화전당 전담인력이 꾸러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운용할 인력들과 함께 콘텐츠를 고민했다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아시아문화전당 국제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베르트 웨러 '세계문화의 집' 총감독, 앤서니 샬런 영국 콜럼비아 대학 인류학과 교수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 '창의적인 문화기관의 탄생', '예술적 사고와 지식 생산'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흡수·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전당이 지역에 있지만, 국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양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한 콘텐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의 역사와 문화의 토대에서 아시아 문화를 규정하고 아시아의 공간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

향 광주의 특성을 문화전당의 중심 개념에 녹여 넣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 외국의 문화를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를 바탕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만들려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광주의 문화적 자력은 충분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건길 “콘텐츠 계획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연구·보완 필요하다”

허달재 “전당 색깔 정하고 콘텐츠 운용할 전담 인력부터 꾸려야”

변길현 “가장 중요한 ‘아시아’ 반영 안돼 ... 하루빨리 방향 정하자”

홍성흠 “광주 문화·예술행사 전당사업으로 흡수통합 노력 필요”

전당의 기능과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 문화의 허브를 표방하는 문화전당에 구체적으로 아시아 문화와 정체성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매를 비판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건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아직 초안 단계지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콘텐츠 계획이 좀 더 현실성 있도록 연구·보완해야 할 것 같다. 콘텐츠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만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들과 아시아문화개발원 관계자들이 만나 콘텐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제언해놓은 상태다. 그동안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나름대로 준비해온 콘텐츠 계획인데, 내용이 어떨든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매를 차게 지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아쉽다.

문화전당의 당초 건립 취지도 희석됐다. 문화전당이 문화창조 공간인지, 전시공간인지도 구분이 모호하다. 문화전당의 색깔이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애초 전당의 건립 취지대로 최첨단 과학과 문화를 접목한 창조공간으로 방향을 잡든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든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문화전당의 당초 건립 취지는 문화예술 전시공간이 아니고 아시아 문화와 첨단과학이 만나서와 다른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자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문화전당의 콘텐츠에는 애초 모습이 많이 희석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언급대로 '전당의 콘텐츠가 막연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현재 콘텐츠 계획으로는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다. 그동안 문화전당 건립이라는 하드웨어에만 역량을 모았던 탓에 정

작 중요한 콘텐츠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시아'인데, 콘텐츠 계획에는 아시아가 반영되지 않았다. 문화전당이 창작공간으로 갈지, 전시·공연 중심 공간으로 갈지도 모호하다. 콘텐츠 내용으로만 보면 특이어나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산발적으로 전시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문화전당에서 뭘 할 것인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도 애매하다. 하루빨리 문화전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갈지 철학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홍성흠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지역의 역사·문화와 콘텐츠를 접목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향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광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아시



더 복잡하고 어렵게 대기 중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세계인과 나누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베르트 웨러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총감독은 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프레스룸에서 기자와 만나 “문화전당이 세계적인 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매체전략이 필요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세계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아시아문화전당 국제 컨퍼런스'(새로운 사회를 위한 아시아 문화의 가능성)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그가 이끌고 있는 '세계 문화의 집'은 유럽을 제외한



베르트 웨러 총감독

아시아 문화전당 내에

연구기능·공연 등

인프라 충분히 긍정적

지역의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지원 하는 문화공간으로, '문화의 등대'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그는 “문화전당이 아시아, 광주는 역사적인 맥락을 축으로 다시 세계를 바라보는 기관이라는 게 매우 흥미롭다”며 “21세기에 꼭 필요한 접근 방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와 관련, “세계 문화의 집도 문화전당처럼 작품 콜렉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문화전당이 단순히 아시아의 전통적인 예술을 보여주는 것 보다 예술적인 측면의 연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도시와 자연,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은 한국의 문제일 수 있지만,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전당이 시각·공연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는 연구기능과 기반을 갖추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문화전당 자체연구팀이 특정 주제를 작품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

화기관, 연구소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식’을 문화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베를린 문화의 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류세(Anthropocene thesis) 프로젝트’에도 예술가, 철학자, 생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류세 프로젝트는 인간 때문에 발생한 자연의 변화에 대해 문화적인 해답을 찾는 사업이다.

웨러씨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에 설립된 문화의 집도 정착하는 데 10년이 걸린 것으로 미뤄 거대한 규모의 문화전당이 개관 후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물론 문화전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전당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 ‘21세기 문화기관의 도전: 지식 생산의 새로운 형식,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 세기의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초등학교 02276-0367, 9 강남구청남구6동415실 03347-5110 등교27점교양학회 0333-0220 승라점(서울역 2번 출구) 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 02365-1838 경인 천원점(구 사신리점)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71-1710 수원점(남문) 031246-5110 오정점(오정역) 03121-6655 안성점(안성역) 031493-0110-1 행복점(행복역) 031658-6110 용인점(용인역) 031336-1030 오산점(오산역) 031378-4183 부천점(부천역) 03329-4400 남양주점(남양주역) 031818-8800 서남점 018-0016 남포점(남포역)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역) 05235-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623-4000 진주점(진주역) 05674-6970 대구 동점(동대구역) 039425-4440 삼척점(삼척역) 039428-1511 남양주점(남양주역) 039425-7576 경북 포항점(포항역) 054644-5110 안동점(안동역) 054839-2246 광주 광주점(광주역) 02225-5110 광주점(백운상) 02261-4477 전남 순천점(순천역) 061702-8945 전북 전주점(전주역) 03325-5728 군산점(군산역) 033446-0198 익산점(익산역) 033039-5000 남원점(남원역) 033032-3325 대전 대전점(대전역) 042294-5110 대전점(중촌역)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4300 충남 천안점(천안역) 041653-2988 광주점(광주역) 0416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04322-1177-8 충청점(충청역) 04382-4144 강원 강릉점(강릉역) 033647-5555 순천점(순천역) 05335-6110 제주 제주점(제주역) 06473-4355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FDA 미국 식품의약품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GMP 의료용기 제조업체

■ 광주점(광주) 07번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백운상)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